

2018년 10월 31일,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좌사남(여, 1930년생, 제주시 외도1동)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수명장자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잘 먹으면 죽어서 제사, 명절을 받아 먹지 않기로 해서 배불리 잘 먹다가 죽었다. 수명장자 부모는 저승에서 제사, 명절에 내려가지 못하자 그 사연을 천지왕이 듣고 분노하여 이승에 내려왔다가 총명부인을 만났다. 이후 두 아이가 태어나 대별왕, 소별왕이라 짓고 아들들은 천지왕에게 갔다. 이승과 저승 차지를 놓고 수수께끼와 꽃 키우기 시합을 하여 대별왕이 모두 이겼으나 형을 속인 아우가 결국은 이승을 차지하게 되자 이 세상이 살인자, 도둑 등 범죄가 많이 생겼다.

수명장자는 결국 벌을 받게 되는데 화덕진군이 내려와 불로 태워 죽였다.

[제보자] 무신 말을 헤 보코. 옛날에 다 들어낫인디. 옛날에 한 고을에 이제 수멩이렌 헌 사람이 살았어. 수명장자. 그거 알아저?

[조사자] 잘 골아줍서.

[제보자] 수명장자가 아들을 일곱 성제 낫인디. 수명장자 어멍, 아방을 데령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흔이 낫어. 일흔이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젠 일흔 낫이난 밥을 한 작씩만 줘그네 굶긴 거라.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우리 제사명질 얻어먹지 말고 죽건 대소상도 허지 말고 삼식도 먹지 말양 산 때 주민 배불게 먹으肯 허영 이제 수명장자한티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죽으민 먹으레 안 올 거니까 산 때 밥도 실피 주고 먹을 거 잘 주민 우리 죽으민 대소상도 허지 말고, 삭망도 허지 말라. 먹으레 안 오켜.”

허난 그때부터 이제 밥을 배불게 젖어. 밥을 배불게 젠 먹당 수명장자 어멍 아방이 죽으난 저승을 가니까 맹질날이나 팔월 맹질이나 설 맹질 웨민 딴 조상들은 맹질 먹으래 다 내려오고 또 자식 엇엉 방친들은 올레 케우려 분 시식이라도 봉가먹젠 다 내려오고 허는 거라.

팔월 추석허고 설 맹질에 몬딱 먹으레 내려오는디. 수명장자 어멍, 아방은 곳간에 가둬정 막 울멍 내려오지 못하는 거라. 경허영 천지왕이 수명장자 어멍, 아

방을 불령

“뭐 따문에 제사, 멩질 먹으레 안 내려값이니?”

허난 우린 산 때 다 먹엉 와 부난 산 때 대소상혈 거, 맹질혈 거 다 먹엉 와
부난 안하기로 허고 우리도 내려가지 않으기로 헷고렌 허난

“에이, 그럴 수가 잇이냐.”

게믄 수명장자 집이 제사, 멩질허게코롬 천지왕이 내려왓어. 내려왕 나무에 앉
앙 수명장자 집이 솟에 올레레 걸음을 걸엉 가. 밥허는 솟이. 수명장자가

“아이고, 솟이 올레레 걸음을 걸없우다.”

아들이 경허난

“맨날 밥 혼 솟씩 헤가난 더원 검불리레 값이네.”

배낏디 소가 지붕 올라간 지붕을 박박 파 가난

“아이고, 우리집에 무신 소금 재해 들엇수다.”

허난

“맨날 밧 갈아나난 더웡 검불리레 햅이네.”

지붕 위에 올라강 용달버섯 나민 그 집이 궂낸 허주게. 용달버섯이 나니까

“용달버섯이 낭 우리집에 소금 재해가 들엇수다.”

허난

“반찬 엇이난 볶아먹으렌 허영 낫이네.”

날개 돋은 개미가 와글와글 허난

“장상 개미가 들엇수다.”

허난,

“우리집 그거 밥허영 먹을 때 아이고 밥 한 숟가락씩 허민 엇어진다.”

경허영 제사 멩질혈 생각을 안허는 거라.

그날 밤 뒤난 천지왕이 앓양 허망을 허당 집 빌어그네 잠을 자젠 허영 집에
들어강 잠을 자는디 그 집 처녀가 예쁜 처녀가 잇었어. 나이 든 처녀가 잇이난
그 처녀하고 어떻허영 몸 허락을 허게 되난 총명부인이렌 허주. 그 처녀를. 총명
부인은 허는 말이

“아이고, 이러다가 잉태행 애 가지민 어떻합니까?”

천지왕이

“유태 가정 아들 두 개 나건 큰아들랑 대별왕. 족은아들랑 소별왕. 경허영 이
름 지우곡, 아방 볼라면, 콩씨 두 방울을 내어주멍 콩씨 심어그네 우터레 뺏어가
민 콩줄일랑 손 심엉 이파리랑 발로 밟았 아방 눈깔 보라.”

허영 천지왕이 올라가 분 거라. 아들 두 성제 난 거라. 대별왕, 소별왕 두 성제가 나난 아방 눈깔 보젠 허난 콕씨 심엉 이파리 디디고 줄 짚엉 올라간 거라.

“이젠 저승 츄지는 누게가 허고 이승 츄지는 누게가 혈 거니?”

허난

“이제 우리가 예숙제낄락 허영 예숙에 진 사람일랑 저승 츄지하고 예숙을 이긴 사람일랑 이승 츄지허쿠다.”

햇주. 경허난 이제 그 대별왕이 큰아들이난 대별왕 허는 말이

“동산에 풀은 얼마나 질고 고랑에 풀은 얼마나 질른 가?”

허난

“동산에 풀은 바람 발락 부나 풀이 매갈르고 고랑에 풀은 바람 의지뒈나네 풀이 무성허영 막 집니다.”

허난

“게난 사람은 머리는 질고 밧 털은 무사 짧으니?”

허난

“동지섣달 서담풍에 이파리가 떨어지는 나무는 어떻하고 이파리가 서담풍 맞아도 아이 떨어지는 나무는 어떻하냐?”

“속이 탱탱한 나무는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속이 구린 나무는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허난

“왕이 죽대. 죽대는 속이 탱탱 구렷인디 동지섣달 서담풍에 잎이 아니 지는 건 어떻하냐?”

허난 예숙이 진 거라.

성이 예숙제껴 이기난

“옵서. 성님. 우리 꽃씨나 싱거그네 꽃이 번성되는 사람이랑 이승 츄지하고 떨어지는 사람이랑 저승 츄지허게.”

허영 꽃씨 타당 한날 한시에 동에 꽃씨 싱겅 물 주고 허영 꽃이 바락바락 커가난. 이제 대별왕이 싱근 꽃은 번성하고 소별왕이 싱근 꽃은 잘 크지 안허영 되어 가난.

“옵서. 성님 좀이나 자게.”

허난

“기여.”

허영 좀을 잣어. 좀을 자난 성은 무심허게 잔 거라. 동생은 꽃 바꾸젠 누웡 자

肯 헤도 좀이 안 오는 거지. 경허영 성이 막 코 골멍 자가난, 성 앞이 꽃을 지 앞이다 옮겨 놓고, 지 앞이 꽃은 성 앞이 옮긴 거라. 성은 좀 자당 깨엉 보난 이 녁 앞이 꽃이 엇인 거라. 동생 앞이 꽃은 성 앞이 오라 불고. 경허영

“예숙제끼기는 거 만날 느가지고, 꽃 싱경 꽃 번성하는 사람 인간 추지허젠헷인디. 나 꽃을 가져가고 나 속엿이난 느가 어서 인간 추지허라. 인간 추지허여도 느가 성 속였으니까, 인간에 도둑놈 많이 나고 부모 속이고 느가 인간 추지허민 성 죽이고 어멍 죽이고 도둑놈 많고 성을 항상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상 도둑놈 깡패 니가 인간 추지허믄 그렇게 될 것이다.”

허영 대별왕이 저승 추지혜 불고 소별왕이 이승 추지혜 부난 우리 인간이 동생이 성 속여 부난 우리 인간이 어멍도 죽이고 아방도 죽이고 놈 속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라.

경허난 대별왕은 저승 추지허고 소별왕이 인간 추지혜 부난 인간이 도둑놈, 깡패, 범인, 성폭행하는 거. 그런 동생이 인간 추지혜 부난 성을 속엿이난 인간 아들도 어멍 속이고 뛸도 어멍 속이고, 죽이고 경허영 인간이 그렇게 된다. 경허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됧주기. 소별왕이 인간 추지혜 부난 어멍도 죽이고 아방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거는 무신 옛말이냐 허믄 천지왕 수명장자본이라.

[조사자] 수명장자는 어떻ತ우가?

[제보자] 수명장자 아들들은 막 행실이 나빠서.

[조사자] 일곱 성제렌 허멍.

[제보자] 응. 소 물 맥영 오라 허민 소 발드레 오줌 싸 놔그네 소 발이 젖어. ‘소 물 맥여 왓수다.’ 허영 부모안티 거짓말허고, 이제 아들이 성제 간이 막 쌉고, 성제가 나쁜 행실을 많이 허니까 수명장자 아들에게

“너네들랑 일곱 신양으로 헤그네 사람 죽어난 디 신양풀이 일곱 신양이렌 헤 그네 상 아래 벌영 일곱 신양으로 얻어먹으라.”

허영, 수명이 아들들은 헤 불고, 수명장자는 화덕진군 내려와가지고 천지왕이 수명이 집이 불을 낸 거라. 불을 냉 이제 막 제사 멩질 안허니까 화덕진군 내려와 가지고 ‘불을 내와 불라.’ 허영 그 집이 불 내왓어. 불 내우민 수명이 어멍 아방은 불 탕 죽엇주기. 수명이네 집은 망해분 거. 불 낭. 화덕진군 내려왕 경헷젠허는 거.

- 핵심어: 수명장자, 천지왕, 충명부인, 대별왕, 소별왕, 예숙제낄락(수수께끼), 화덕진군, 이승, 저승, 제사, 멩질(명절), 일곱 신양, 꽃씨(꽃씨), 성님(형님)